

사설

쉬운 경전만들기 '발등의 불'

불교의 교리하면 우선 어렵다는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 어렵지 않았다. 부처님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려웠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그런데 왜 불교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었는가?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에는 반드시 쉽게 알아 듣고 깨우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결집하고 문자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졌다고 본다. 중국사람들은 유통하기 어려운 법어경전을 자기네 말인 한문으로 모든 경전을 번역하여 쉽게 활용하였으므로 중국에는 불교가 일반화하게 되었다.

한국불교는 한문 문화권에 속한 까닭에 한역대경전을 그대로 사용하여 왔다. 이제 한글세대가 주류를 이루어 복잡한 한문경전을 대하면 딱딱하고 어려워서 당혹감마저 느끼게 되었으니 불교교리가 어렵다는 말은 당연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불교가 빨리 일반화하려면 우리말로 된 쉬운 경전이 보급되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시대와 근기에 맞는 수기설법으로 사람들을 교화하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백번 발휘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도 일반에 통용되는 가장 적합한 언어와 순리로 불경을 번역 보급하지 않으면 불교는 언제나 고답적인 것으로만 비쳐지게 된다.

현재까지 동국역경원에서 번역되어 간행해 온 경전은 30여년의 지지부진한 세월 속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재번역되지 않으면 역시 고문서로 취급받기 쉽다. 요즘도 역경원에서 다소의 역경이 출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광고도 보급도 원활하지 못하고 번역된 말도 너무 어렵게 풀이되어 역시 무슨 뜻인지 난해한 점이 적지 않다.

시대에 부응하는 역경사업이 교육·역경·포교의 종단 삼대사업 중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역경도량을 개설하여 불교의 중점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난달 21일 역경원후원회가 발족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경원과 역경진흥원의 운영 사업계획도 의심없이 정리되어야 하고 중앙승가대 역경연구소와 통합해 하나의 기구로 정립되고 힘이 결집되어 명실상부한 역경기관으로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경위원의 구성이다. 한문·영어·불어·서양어를 하는 사람은 물론 국어문학까지 포함한 역경인력을 모아서 경전의 의미에 충실하고 시대언어 표기에 적절한, 최대한으로 알기 쉬운 불경 번역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종단은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역경예산을 증점배정하여 독립된 기관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스님들과 신도들도 불경이 설명하기 어렵고 난해하다는 말만 하면서 기다리지만 말고, 역경인력의 양성과 번역 출판기금에 출연하는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만 불교교리가 쉽게 대중에 접근되고 이해되어 생활불교로 보편화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열린 마당

이웃을 위한 봉사는 자기수행이다.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중요한 행동교육 평가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최근의 각종 대형 사고에서도 봉사의 소중함이 거듭 강조됐다. 봉사현장의 목소리와 교계의 현황을 짚어본다.

자원봉사

'삼풍 대참사' 봉사 소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 하자마자 많은 불자들이 구조현장으로 향했다. 나 또한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사할단위, 신령단체단위로 소매를 걷어부치고 봉사현장에 뛰어든 보살들은 대개 자기일도 잊혀놓은 채 새벽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마련해 오후내내 구조원들과 실종자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구조에 지친 대원들을 따뜻한 미소와 음식으로 위로하는 일을 보았으므로 삼았다.

봉사자체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헌신적이었지만 타 단체와 비교해 불대 봉사활동의 행정적 지원체계가 전무한 상태였다.

타종교단체의 경우 강남 인근 교회들이 연대해

여름 청소년 자원봉사 신청

얼마전 이웃 할아버지를 친구들과 함께 방문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처음으로 봉사를 경험했다.

처음에 할아버지처럼 방문했을 때는 속스럽고 서먹서먹해서 이상했지만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도 하면서 5시간동안 봉사활동을 했다.

나도 많고 건강도 좋지않아 거동조차 불편한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여느때와 달리 좀더 뜻있고 보람된 일을 해보기위해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에 신청을 했다.

'부처님 자비 몸으로 실천 실종자가족에게 작은 위안'

교대로 음식을 마련해와 정해진 장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잘 정돈된 협조체계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불교는 사찰과 사찰간의 협조체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 봉사장소가 여러번 변경되기도 했다.

불교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하고 조직적인활동을 위한 지도체계가 더불어 기존의 자원봉사단체를 결속시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될때 우리 불자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것이다.

'양로원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 학교서 못배운 공부 하고교'

내뽕래의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했다고 한다. 나는 학교친구 2명과 함께 양로원과 유아원봉사를 신청했다.

양로원을 찾아가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나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로 생각하며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안마도 해드릴 생각이야.

다른 친구들은 방학동안 여행갈 계획도 세우고 바쁘지만 올 여름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하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른 많은 것들을 배울 생각이야.

이양숙 (서울 상계동)

권민경 (성신중 1년)

교계활동 현황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자유의지에 따라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불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자원이자 포교방편이다.

불교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사찰, 신도단체의 소규모 활동에서부터 전문자원봉사단체의 활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을 뒷받침해줄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회복지의 인적자원으로서의 자원봉사자 양성과 그 활동토대를 구축할 불교종합자원봉사단 설립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의 불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도 몇몇 미흡한 불교계의 행정적 지도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다.

간병·취사·무료진료·법률상담등 불자 적극 참여 체계적 봉사 미흡...종단 차원 '봉사단' 구성 대두

교계 자원봉사자의 주요활동을 보면 주 1회 3~4시간 정도로 불우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 가장세대등 불우한 사람들을 위하여 길장, 빨래, 취사, 장애인활동보조, 이미용 등 단순한 인적봉사활동에서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교사들이 참여하는 무료법률상담, 무료진료, 간병, 학습지도 등 전문적인 봉사활동과 청소년 선도 및 상담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아직 불교계에는 불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조계종 총무원이 이와 관련 현재 불교종합자원봉사단의 발족을 위해 기초작업을 진행중에 있어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불교사회복지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년부터 순수 민간 자원봉사단체에 국고보조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불교계도 이를 기점으로 불교종합자원봉사단을 서둘러 결성하고 정부지원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론

"우리가 정말 이런 민족이구나"

— 대고려 국보전 감상

금년 여름을 보내기엔 어느 해보다 장마와 태풍들의 맑은 햇살과 폭염속의 한창기 소낙비를 감호하는 시간이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상처위에 남해의 바다가 시커멓게 죽어가는 골깊은 상처로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너 나 없이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으니.

도저히 응서 받지 못할 죄악의 규명에 앞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부도덕의 감염에 너 나가 부끄럽고, 세계화 덕분에 민족성이 추락했다.

졸속문화, 갑작시대, 적당주의, 물질만능 등 온갖 수식을 동원하여 나라안팎에서 떠돌아다니 자책과 성찰로 고개를 들지 못할 뿐 의식구조의 대안과 본질적인 삶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섬세하고 우아하며 화려한, 그러나 경박스럽지 않게 기품을 지닌 장중미요, 우리역사와 문화의 정화(精華)로서 전통성과 독창성을 지닌 세계와 국제성에 공감을 획득하고 있으니 말이다.

천년을 버틴 조상의 건축물

(수원관음도) (지장보살도)의 법연덕의 감염에 너 나가 부끄럽고, 세계화 덕분에 민족성이 추락했다.

졸속문화, 갑작시대, 적당주의, 물질만능 등 온갖 수식을 동원하여 나라안팎에서 떠돌아다니 자책과 성찰로 고개를 들지 못할 뿐 의식구조의 대안과 본질적인 삶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민족이었던가. '아침의 나라' '유구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자랑한다고 글을 깨치면서부터 배워왔던만 어쩌다가 거름사회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었는가.

그러나 이같은 전술속에 침몰의 반란은 한편으로 세월을 거슬러 까마득한 곳에서 마치 샘물처럼 거리의 숨결이, 혼백이 이 땅에 서리고 있다.

그것은 선악의 구별이요, 필시 애증(愛憎)의 교감일진데 오늘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무슨 모든 간구였던가. 철학 같은 아픔을 말고 겨레에게 살고

은 진사(辰砂)를 칠회한 녹색에서 진홍빛으로 건너낸 솜씨며 자신감이 농축된 조형의 변화는 실로 세계적인 명품이 아닐 수 없다.

어디 그뿐이라. 공예분야인 (나전 대모국당초염주화)의 치밀하고 화려한 미의 공경과 (청동은인사포류수금무늬정병)은 금속공예와 회화의 절묘한 만남을 보여준다.

또한 <금동불감> (금동대탑) (용두보당) (금속화자) 그리고 <팔만대장경목판>은 도대체 어느 민족의 솜씨로 빚어진 것인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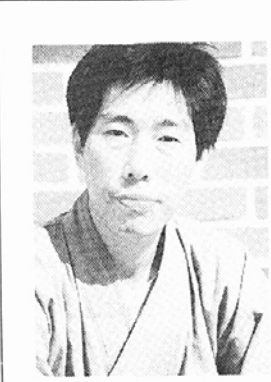
가슴저민 전시장을 누르면서 자신을 불러세운 의식은 지금 과거의 문화유산 자랑속에 파묻힌 오늘이 먼 훗날 이십세기 문화를 후세인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에 혼돈이 왔다.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이 천년을 버티 오면서도 외연함과 장엄미를 잃지 않음에 반해 최신 현대공예의 백화점이 유년만에 꺼져 내린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최선과 교만의 행태요, 원칙과 태만의 간극이요, 자비와 이기의 분별이 아닐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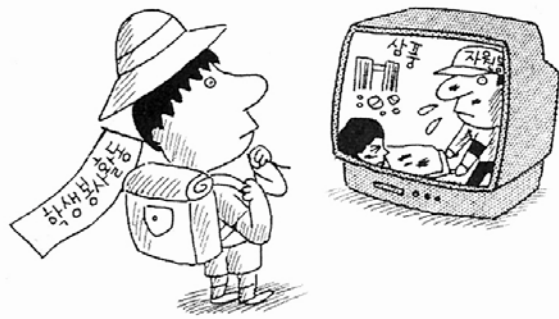
따라서 금년 여름의 애증을 두고 두고 잊지말자.

우리에게는 예로부터 지극한 영혼의 아름다움을 빚어온 성정(性情)이 있지 않은가. 그 자신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금 찾아 나서자.



이 호 신 (동양화가)

현대 만평 박구원



떠나기전에...

정 중 선 원

고승초청 예수재 49일 기도

끊임없는 원력과 기도정진력으로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나가시는 불자님 가정에 항상 불, 보살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불자님의 기도 정진원력은 가정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름길이며 자신의 참성품을 밝히고 무명 업식을 벗기며 윤회의 길을 벗어나는 선근중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윤회의 굴레에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명, 업식과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올바른 기도와 제불 보살님 그리고 참다운 선지식을 만나 올바른 길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저희 정중선원에서는 이 시대에 크나큰 선지식이신 일곱 분의 스승님을 초빙 증명 법사로 모시고 영가 전도법회 및 생전예수재 법단을 마련하여 중생들이 무명 업식을 벗어나는 올바른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1. 일곱 분 선지식 증명법사님 설법내용

- 8월 14일 월요일 윌 성 큰스님 (본원 선원장) (예수재란 무엇인가. 예수재의 공덕)
- 8월 21일 월요일 ■ 산 큰스님 (쌍계사 주지) (기도의 원력 그리고 성취에 대하여)
- 8월 28일 월요일 천 운 큰스님 (해남 대흥사 주지) / (기도와 보시정신)
- 9월 4일 월요일 해 정 큰스님 (전 총무원장) (이웃을 부처님처럼, 전법의 기수가 되자)
- 9월 11일 월요일 윌 탄 큰스님 (전 법주사 주지) (늘 깨어있는 불자가 되자)
- 9월 18일 월요일 밀 운 큰스님 (전 봉은사 주지) (청정도량을 만드는 보살)
- 9월 25일 월요일 무진장 큰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함께 하는 기쁨, 나누는 기쁨)
- 10월 3일 화요일 회 향 식 (불교전통 법패 전수자 스님들의 바라춤, 나비춤, 회심곡 등으로 여법히 회향합니다.)

- 1. 예수재 : 입재 1995년 8월 14일 월요일
- 회향 1995년 10월 3일 화요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18-7 영재빌딩 5층
대한불교 조계종
정중선원
TEL 573-8506 / FAX 575-2709

*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바람